

## 대학의 세계화 의의와 활성화 방향

정 건 영 | 계명대 경영학부 교수

21세기의 세계는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있어서 국경의 의미를 더욱 퇴색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갈 것이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경쟁의 분야가 확대되고 각 분야별로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은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지난 1997년 말 이후 우리 나라는 외환 위기로 국가 전반에 걸친 총체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많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혁이 과연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는 아직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으나 국내·외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부족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세계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균형

있는 인식 제고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는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 평가는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9)』에 극명하게 나타났다. 즉, 동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서 지난 3년 연속 하락했으며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개방도는 35위, 인접 국가와의 관계 및 국제 관계는 각각 41위와 44위를 차지했다. 이는 결국 우리 국민의 의식이 아직도 내부지향적인 측면이 많아 세계의 변화에 눈을 돌려 그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고위 정책담당자 및 정치지도자들의 인식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나라가 21세기 초에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 변화에 적응하고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긴급한 과제의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세계 변화를 균형 있는 감각으로 이해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며, 나아가 세계무대에서 유능한 능력을 마음

것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 세계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자본, 기술, 인력, 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활발히 움직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과거처럼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여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이 국내에서 경쟁이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고 안주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결코 밝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통해 세계 관리에 참여하는 핵심국가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세계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젊은 세대들이 세계 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갖고, 각자의 비교우위 분야를 개척·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나 세계무대에서 선두주자로 활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은 교육과 더불어 교육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즉, 대학이 먼저 세계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 과제의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들 수 있다.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아지면 대학의 세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때 가져다 주는 구체적인 효과는 어떤 것일까?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을 접하게 되면 언어 소통을 위해 외국어를 배우게 되고 동시에 우리말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외국인 친구의 모국에 대하여 역사,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외국인 학생은 자연히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외국을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치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을 알게 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많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우리 학생의 외국 유학보다 훨씬 더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가는 수보다 국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우리 학생들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생이 선진국에서 온 경우라면 선진 외국 대학의 교육제도와 경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외국인 학생이 우리 나라보다 경제 개발 수준이 낮은 개도국에서 왔다면 우리의 교육제도와 경험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을 떠나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우리 나라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보탬이 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IMF 경제위기 등을 교훈 삼아 그들의 모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나라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누적되어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우리 나라의 교육분야도 상품이나 다른 서비스 분야와 같이 국제시장에 수출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긍정적 효과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21세기에 그 중요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을 보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과 비교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커다란 문제점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즉 교육 서비스의 내용과 질, 그리고 보조서비스 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가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세계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제 정보화와 세계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 유수의 매력 있는 대학들은 가만히 앉아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마치 경쟁하듯 보다 적극적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과 국가의 위상 제고라는 목표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므로써 대학의 세계화를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은 다음 세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과 보조서비스를 향상시킨다.

둘째, 정부와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가용자금의 제한이 있는 만큼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정부는 현재 우리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태가 매우 취약함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강의 교재개발 및 외국인 교수 초빙, 한국어 및 한국학 프로그램의 정비와 내실화 및 해외 보급 확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편안하게 수학할 수 있도록 기숙사 등 대학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세계 각국과 국내 대학과의 정보 교환, 정부초청 장학금의 확대 제공이 필요하며, 정부 유관 부처(법무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노동부, 산업자원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학정책 수립과 실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태가 매우 취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대학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질과 수준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들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문은 교육서비스의 국제화이다. 더불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개선과 더불어 교육 보조서비스와 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대학에서 졸업한 유학생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대학별로 유학생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하고 대학 자체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학차원의 정보시스템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에 발족한 한국대학 국제교류협의회(KAFSA)<sup>1)</sup>의 정보망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구축은 대학의 세계화를 위해 매우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KAFSA가 구축한 웹사이트에 대학이 필요로 하는 세계의 국제교류 관련 정보가 신속 다양하게 실릴 것이며 동시에 세계의 국제교류 관련 기구

1) 대학의 세계화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각종 프로그램은 기획 개발하고 집행하는 국제교류 부서장 및 실무 담당자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정보 교환을 통하여 대학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대외적으로는 NAFSA(미국대학 국제교류협의회), EAIE(유럽대학 국제교류협의회), JAFSA(일본대학 국제교류협의회), CAFSA(중국대학 국제교류협의회) 등과 같은 지역 국제교류 관련 대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9년 12월 17일에 전국 70여 개 대학교와 대학이 모여 창립한 한국대학 국제교류협의의 기구임.

나 기관,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회원대학의 각종 정보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세계화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과 우리 교육의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대학이 이 일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건영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 대학 대학원 협력실장을 역임하고 있고, 한국 대학 국제교류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회계의 역할」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Differential Market Reaction to Accounting Change Away From Versus Towards Common Accounting Practices”, “차입비용의 자본화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